

KIA 1위 수성 '가시밭길'...8연승 두산 막아라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험난한 한 주를 맞는다. KIA는 지난주 2승 3패의 전적을 기록하면서 2주 연속 '1'을 기록했다. 날씨 변수가 있었다. 7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삼성과의 첫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어린이날 우천 취소 포함 3일을 쉬었고, 11일 내린 비로 12일에는 SSG와 홈에서 더블헤더를 소화했다. 날씨처럼 KIA 전력도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면서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2위 NC가 1승 4패로 부진의 한 주를 보내면서 KIA는 일단 2경기 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KIA는 14일부터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과 주중 3연전을 갖는다. 17일에는 창원으로 이동해 NC와 원정 3연전을 치른다. 내부 약재 속 '8연승' 두산, '2위' NC와의 대결을 이어가야 하는 만큼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월 크로우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하는 등 부상 약재가 또 발생했고 공격과 수비 모두 흔들리고 있다. 나성범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실력까지 돌아오지는 않았다.

광주 3연전 양현종 선발...창원서 2위 NC와 격돌
크로우 부상 이탈 속 공수 흔들...잇몸으로 버텨야

나성범은 지난주 5경기에서 6개의 볼넷을 얻어 냈지만 단 하나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했다. 6차례 삼진으로 물러나기도 하는 등 답답한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KIA의 수비 불안도 여전하다. KIA는 12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 황동하의 5이닝 1실점 호투와 김선빈의 결승 솔로포를 앞세워 3-2 승리를 거뒀다. 열세가 예상됐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KIA는 소크라테스의 시원한 3점포가 나온 2차전에서도 승리를 낚는 것 같았다. 하지만 KIA는 3개의 실책으로 분위기를 내주면서 승리를 놓쳤다. 황동하가 두 경기 연속 5이닝을 소화하며 선발진에 힘을 보탤지만 크로우의 부상 공백이 더해지면서 선발 고민은 여전하다. 굳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불펜진도 연달아 패전투수의 명을 쓰는 등 전체적인 마운드 흐름이 좋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KIA는 가장 뜨거운 팀 두산을 만난다. 두산은 지난주 6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등 8연승 질주 중이다.

투타의 밸런스가 눈에 띈다. 두산은 지난주 2.67로 가장 낮은 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팀타율은 무려 0.386을 찍는 등 방망이도 뜨겁다. 8개의 홈런도 쏟아내는 등 거침없는 상대를 막기 위해 양현종이 마운드 전면에서 선다. 양현종은 완투승 이후 삼성 원정경기에서 6이닝 1실점(1자책점)의 호투를 이어가며 대구 징크스도 털어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양현종은 두산 외국인 투수 브랜도와 눈길끄는 마운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주말에 만나게 되는 NC의 최근 흐름은 좋지 못하다. 하지만 2위를 지키며 호시탐탐 KIA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 또 KIA가 주말 3연전 두 경기를 6:7 선발로 풀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초반 승리를 이끌었던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나성범의 반등과 함께 스피드를 활용한 KIA의 '특정 전략'도 필요하다. 황동하가 눈길을 끈 마운드, 타선에서는 박정우



KIA 양현종이 14일 홈경기 선발로 나서 두산 9연승 저지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시즌 처음 1군에 콜업된 박정우는 12일 더블헤더 2차전에서 9번 타자 겸 우익수 선발 출장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개인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강점이 수비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박정우는 최지

훈의 장타성 타구를 플라어로 만드는 '슈퍼 캐치'를 선보이면서 박수를 받았다. 강건과 빠른 발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만큼 박정우가 침체된 KIA 타선에 새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4 국제배구연맹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가 15일 개막한다. 사진은 여자배구 대표팀이 공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배구연맹 VNL 개막...한국, 목표는 '1승'

페퍼스 박사랑·박정아·한다혜 대표 발탁...15일 중국과 첫 경기

2024 국제배구연맹(FIVB) 여자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가 개막한다. 페퍼스 박정아, 박정아, 한다혜가 대표팀으로 발탁됐다. 대한민국 여자배구 대표팀은 15일 오전 5시 30분(이하 한국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2024 FIVB 여자 VNL 1주차 경기에서 중국을 상대로 첫 예선을 치른다. 이어 17일 오전 2시 브라질, 19일 오전 5시30분 도미니카공화국, 20일 오전 5시30분 태국을 상대한다. 미국 알링턴에서 치러지는 2주차 예선에서는 볼

가리아-폴란드-튀르키예-캐나다와, 3주차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본-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와 맞붙게 된다. 대표팀은 지난 4월 소집된 선수단에서 부상 선수 문정원(한국도로공사), 김다은(흥국생명), 김연경(현대건설), 이소영(IBK기업은행)을 각각 한다혜, 문지윤(GS칼텍스), 김채원(IBK기업은행), 박수연(흥국생명)으로 교체했다. 김연경·김수지(이상 흥국생명), 양효진(현대건설) 등 거물급 선수들이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태극마크를 반납한 이후 한국 여자배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VNL에서 2년 연속 전패하며

14위였던 세계랭킹이 40위까지 추락했다. 세계 무대에서 신체적 조건과 공수 불균형이 한국의 열세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그간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요구된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 체제로 처음 치르는 대회인 이번 VNL은 분위기가 반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3월 선임된 모랄레스는 푸에르토리코 대표팀 감독을 맡아 세계랭킹 16위로 끌어 올리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반등 각오를 다지고 있는 대표팀의 첫 승의 제물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중국-미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태국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2024 FIVB 여자 VNL은 태국 방콕 외 6개국 도시에서 오는 6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한국인 메이저리거 수난시대

이정후 수비 중 펜스 부딪혀 어깨 탈구·김하성 투구에 손등 맞자

염좌로 알려진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부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13일 열린 신시내티 레즈전이 끝난 뒤 이정후의 부상과 관련해 왼쪽 어깨 탈구(Dislocated)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최초에는 비교적 가벼운 어깨 염좌(Sprain)로 알려졌다가 밥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어깨 분리(Separated)로 표현했다. 이후 구단이 최종적으로 탈구로 정립했다. 이정후는 지난 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자신

의 파울 타구에 왼쪽 발등을 다쳐 10~12일 열린 3연전에 결장했다. 이날 신시내티전을 통해 1번 타자 중견수로 복귀했지만, 1회초 수비 도중 홈런성 타구를 잡으려다가 펜스와 충돌해 쓰러졌다. 이정후는 2사 만루에서 제이커멜라리오의 홈런성 타구를 쫓아가다가 펜스를 향해 점프했다. 타구를 잡지 못한 이정후는 그대로 왼쪽 어깨를 붙잡고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고, 그대로 타일러 피츠제럴드와 교체됐다. 이정후는 14일 자기공명영상(MRI) 등 추가로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복귀 예상 시점은 추가 검진을 받아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결장이 불가피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태가 가볍다면 수술 없이 몇주간의 휴식과 재활로 복귀할 수 있지만, 심할 경우 회전근개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한편 이날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상대 투수의 투구에 맞고 경기에서 빠졌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4회 1사 1·2루에서 다저스 선발 워커 블러의 시속 94.4마일(약 152km) 몸쪽 싱커에 왼쪽 손등을 강타당했다. 다행히 검사 결과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실트 샌디에이고 감독은 경기 후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김하성이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유성은천장사씨름 우승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유성은천장사씨름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반달곰씨름단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 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유성은천장사씨름대회 여자부에서 영동군청을 4-1로 꺾고 단체전을 제패했다. 7판 4선승제로 진행된 결승전 첫 번째 판에서 김시우가 발다리와 뒷다리 3판 2선승을 따냈고, 두 번째 판에서 1-0으로 앞서던 선채림도 경고승을 거뒀다. 기세를 이어 세 번째 판에서 이세미가 들배지기과 밀어치기로 2-0승을 따냈다. 상대의 지목으로 출전한 장정인이 1-2패하며

한 점을 내줬지만, 다섯 번째 판에서 최희화가 2-0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반달곰씨름단은 단체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김승환 반달곰씨름단 감독은 "첫 번째 경기에 나선 김시우의 상태가 이번 대회 개인전 대회급 우승자인 양은서였다"며 "김시우가 목감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첫 판을 중요한 승부처로 삼았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잘해줘서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자부 개인전에서는 양은서(영동군청), 이서후(화성시청), 임정수(괴산군청)가 각각 제급 정상에 올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경양초 홍석류(가운데)

광주제중 송채연(가운데)

전남제중 김민형

광주·전남 기계체조 선수단 '금빛 활약'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기계체조 사전경기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이 '금빛' 활약을 펼쳤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영암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기계체조 사전 경기가 진행됐다. 경양초 홍석류(6년)는 여자 12세 이하부 마루에서 12.400점으로 박운서(서울 광희초·12.333점), 신호은(서울 창천초·12.167점)을 밀어내고 1위에 당당히 올랐다. 광주제중 송채연(2년)은 여자 15세 이하부에서 도마 12.050점을 기록하며 탁소민(경남 합포중·11.850점), 하지만(대구 원화중·11.833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제중 김민형(3년)은 남자 15세 이하부 철

봉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김민형은 지난 12일 예선에서 11.200점으로 4위를 기록한 뒤 결선에서 12.560점을 획득하며 김인하(경기체중·12.180점), 박승택(청천중·11.540점)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를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50여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약 2만명의 선수단이 총 36개 종목에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뽐낸다. 기계체조는 사전 경기로 진행됐으며 축구, 하키, 야구, 테니스, 농구, 핸드볼도 개막 1-2일 전부터 예선에 돌입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